

STAR CRAFT

HEART OF THE SWARM

얼음집

마이클 오라일리, 로버트 브룩스 공저

BILZARD
ENTERTAINMENT

얼음집

마이클 오라일리, 로버트 브룩스 공저

죽음으로 가는 길은 여럿이고, 승리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 얼음집 강령 제1 조

가브리엘 펠츠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재순환된 공기에서는 뜨거운 쓰레기 냄새가 났고, 악취는 짐칸에 갇힌 스물 네 명의 불쌍한 사내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점점 심해졌다. 어둠 속에서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는 그들의 몸뚱이로, 선체의 흔들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덕분에 가브리엘은 길어야 몇 분씩 선잠이 들었다 깨기를 며칠째 반복하고 있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림이 멎었고, 그 바람에 몇 명이 소리를 질렀다. 문이 열리더니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와 함께 찬바람이 불어 들어오지만 앓았다면 모두들 내심 반가워했으리라. 바람은 마치 실체가 있는 양, 피부를 감싸며 목을 죄어 왔다. 밖에는 빛과 눈 냄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다들 일어나! 40 초 주겠다! 움직여!”

가브리엘은 얼음장 같은 바람을 피하려고 눈을 가린 채, 나머지 사내들과 함께 비틀비틀 걸어 나갔다. 디딤대에서 발을 떼 무릎까지 쌓인 눈 위로 내딛자 악 소리가 나왔다. 전투 장비를 입은 경비병들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짝 벌어져 있는 육중한 문으로 포로들을 몰아 넣었다. 입구로부터 약간이나마 온기가 흘러나왔고, 포로들은 입구로 밀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불빛이 그들의 새로운 숙소를 밝혔다. 무슨 시설인지는 몰라도 강철과 철망으로 만들어진 인공의 시설이었고, 저 안쪽으로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경비병이 내지른 명령에 따라, 그들은 다른 문이 나올 때까지 안으로 들어갔다. 문 뒤에는 사람이 오백 명은 들어가는 규모의 회당이 있었다.

“줄 서!” 경비병이 외쳤다. “교도소장님께서 너희를 점검하실 것이다!”

케조라 소장은 뒷짐을 진 채 중앙통제실 가운데 서서, 눈앞에 있는 수십 개의 화면을 훑어보았다. 화면은 제각각 신입들을 비추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세상에는 재사회화하기가 힘든 인간들이 극소수 존재하는데, 이 시설에서는 그 얼마 안 되는 인간들 중에서도 쓰레기만 받았다. 대개는 해적, 좀스러운 사기꾼, 살인자 등이고, 반체제 인사도 하나둘쯤 있을지도 모른다.

소장은 또 한 번 그들을 모조리 총살해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그의 일이 아니었다. 멍스크 황제 폐하께서 사신을 원하신 이상, 사신을 키워야만 한다.

“저 녀석은 어떤 녀석이지?” 케조라가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일곱 번째 녀석 말이다.”

키가 작고 영양 상태가 부실한 젊은 남자, 아니 소년이었다. 소년의 이마와 맨어깨는 산으로 인한 화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양 팔뚝에는 흉터가 얼기설기 나 있었다. 맞아서

영망이 된 얼굴에서 앞을 주시하는 눈은 마치 프로토스의 눈같이, 행하면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소위 계급의 분석가가 답했다. “새뮤얼 로즈, 22 세. 폭행, 군 장비 남용, 군 기물 파손 전과 여러 건, 살인 전과 여섯 건. 심리 분석 보고서는 아주 가관입니다.”

“상상이 되는군. 흥터는 어쩌다 생긴 건가?”

“이마의 상처는 저그 점령지에서 생긴 겁니다. 저그 군락지에 낙하할 때 선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전이 영성했던 건지, 분대 전체가 저그의 생물독 공격을 받았다는군요. 어떻게 살아남긴 한 모양입니다. 나머지 상처는 자해한 것입니다.”

케조라는 화면을 확대해 로즈의 이마에 남은 괴사 조직의 흔적을 보면서, 소년의 전과 기록에 대해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시냅스가 외계인의 독을 뒤집어 썼는지 어찌 알겠는가? 이미 골렘과 다름없을지도 모른다. 훈련을 시켜 보면 얼마나 쓸모 있는 놈인지 파악이 될 것이다. 소장은 화면을 축소해 다시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신입 재소자들은 대개 정면이나 아래를 보고 있었다. 몇몇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경비병들을 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한 쌍의 눈만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케조라는 회당에서 그렇게 겁에 질린 사람은 처음 보았다. “저 자식은 누구지? 스무 번째 놈 말이다.”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한 기술자들은 몇 분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었다. 뒤돌아 보니 기술자 셋이 한데 모여 화면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뭐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름은 가브리엘 펠츠고 거주민 전초 기지에서 잡혀 왔습니다. 전과 기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경 적성에 대한 정보조차도요.”

케조라는 얼굴을 찌푸렸다. 공무원이 서류 작업을 게을리한 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코랄에 요청해라. 정보가 더 필요하다.”

“회신을 받으려면 하루는 걸릴 겁니다. 펠츠를 줄에서 뺄까요?”

“아니다. 연결해라.” 클릭 소리가 몇 번 들리고는, 중앙통제실 가운데 놓인 마이크 앞의 노란불이 켜졌다.

케조라의 목소리가 회당에 울려 퍼졌다. “토러스 시스템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너희가 여기 온 것은, 너희와 얹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우주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이 너희가 자치령에 쓸모있는 존재가 될 마지막 기회다. 이곳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사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어차피 할 일이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사이드바: 아무리 큰 대가를 치러도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크다. -

얼음집 강령 제2 조

줄지어 선 재소자들이 몸서리를 쳤다. 항상 이렇다. 케조라는 이 부분을 늘 즐겼다.

“훈련은 다음 수면 시간 후에 시작되고, 내가 끝났다고 할 때 끝난다.” 그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는 말을 맺었다. “얼음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경비병들의 손짓에 따라, 재소자들은 문을 하나 더 지나 시설 안쪽으로 들어갔다.

경비병들은 따라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육중한 문을 닫아걸었다. 재소자 몇 명이 두리번거리며 다른 간수가 있는지 살폈다. 인간 남자보다 머리 하나씩은 더 큰 로봇들이 장갑을 두르고 가우스 포를 쌍으로 든 채 복도의 벽감에 위치해 있었다. 로봇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궤도 바퀴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가브리엘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감히 시험해 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때 딱 부러지는 여자 목소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재소자 몇이 부관 나부랭이가 어찌고, 하며 구시렁거렸다.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사신 훈련 시설의 신입 재소자들을 환영하고는, 그들이 자치령에 이바지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이마에 흉터가 있는 젊은이가 음울하게 웃었다.

부관은 여행사 책자라도 읽는 듯이 명랑한 말투로 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그 설명을 듣고 있자니 좋은 곳으로 생각될 정도였지만, 멀리 보지 않아도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는 불쾌한 증거가 보였다. 공기는 건조하고 차가우면서도 텅텅한 냄새가 났다. 벽면에는 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게 뭔지는 굳이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위를 올려다본 가브리엘의 눈에 천장에 매달린 온갖 감지 장치가 들어왔다. 열 감지기, 동작 탐지기, 카메라 등... 또 뭐가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사생활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들은 마침내 숙소에 다다랐다. 숙소라고 해야 작은 방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구역일 뿐이었는데, 그곳은 비어 있지 않았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도착한 듯한 백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입들을 맞이한 것이다.

가브리엘은 이것이 기분 좋은 만남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분명 누군가를 재고 싸움을 걸어 본보기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듯, 팔다리가 길고 덩치가 산만 한 남자 하나가 마치 악어처럼 씩 웃으면서 신입 재소자들을 향해 으스스대며 걸어왔다.

“이건 뭐야?” 거친 목소리가 말했다.

모두들 사내가 고른 희생자를 보고 있었다. 그 흉터가 있는 아이였다. 덩치 큰 남자는 아직도 파충류 같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얼른 한 방 먹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으면서도 우선은 아이를 가지고 놀려는 것 같았다.

“어디서 왔냐, 꼬맹아?”

“몰라.” 두려움이 없다. 아무 감정이 없다.

“*몰라.*” 덩치가 흉내를 내자 주위 사람들이 심술궂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름은 뭐야? 너무 멍청해서 자기 이름도 모르냐?”

“리스크야.”

가브리엘은 양팔이 따끔거리는 느낌이었다.

사이드바: 재소자는 생존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 얼음집 강령 제3 조

“그래? 네가 뮤탈리스크라도 되냐? 이 녀석 좀 봐. 이름을 새로 지어 줘야겠군.

꼬맹이리스크는 어때, 이 쥐새끼야... 뭐—?”

가브리엘 쪽에서는 덩치가 뭘 보았는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본 사람들은 이제 웃고 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아이가 움직였다. 아이가 주먹으로 얼간이의 복부를 강타하자, 그는 고통으로 허리를 꺾었다. 아이가 날쌔게 옆구리를 몇 번 무자비하게 걷어차자 덩치는 쓰러져서 가느다란 신음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뺨었다.

아이는 웃음을 띤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날카롭게 갈린 이빨과 딱지가 앓은 잇몸이 드러나는 무시무시한 웃음, 괴물의 웃음이었다.

“그냥 리스크야.”

수면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귀를 때리는 경보음이 모두들 방을 나갈 때까지 멎지 않았다.

그들은 구내식당으로 갔다. 식당에서는 기계가 첫 번째 식사를 배급하고 있었다. 몇 가지 영양분에 알 수 없는 재료를 섞어 만든, 몸에 안 좋아 보이는 죽이었다. 죽은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고 양도 부족했지만, 배급된 거라곤 그게 다였다. 가브리엘이 겨우 한두 입 먹었을 때 덩치 큰 재소자 하나가 그릇을 빼앗아갔다. 그는 일을 키우지 않기로 했다.

이 사이로 죽을 흘리며 식사를 하는 리스크의 곁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부관은 그들을 다시 회랑으로 불러들였다. 회랑은 가학적인 육상경기장이라 할 수 있을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재소자들은 구령에 맞춰 몇 번이고 달음박질과 땀박질을 하고 몸을 굽혔다 펴고 공을 던지고 받았다. 감시포 몇 대가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했다.

첫날 일정이 끝나자 남자들은 하나같이 지쳐 떨어져 휴식을 갈구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힘들어질 것이었다.

하루하루가 뚜렷한 구별 없이 흘러갔다. 일정한 주기도 없었다. 수면 시간은 부관의 변덕에 달려 있었다. 음식은 바뀌지 않았지만, 훈련은 바뀌었다.

기계가 얼음집을 관리한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얼음집 자체가 하나의 기계였다. 방마다 로봇이 있었으며, 대부분이 훈련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했다. 로봇들이 움직이는 목표물이 되고, 전투 기술 훈련을 위한 대련 상대가 되고, 장애물이 되었다. 봐주는 법도, 대충 하는 법도 없었다. 재소자들은 쉬엄쉬엄하려면 할 수가 없었다.

최악의 날은 모의 상자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재소자들은 각자 전구와 전선, 띠가 달린 관 모양의 장치 앞으로 가서, 부관의 지시에 따라 안에 누웠다. 거부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가히 악몽이라 할 수 있었다. 특정한 감정을 촉발하도록 선택된 빛과 소리가 뇌에 직접 주입되었다. 가브리엘은 장치에 끈으로 묶인 채, 감정이 악기의

현처럼 튕기는 걸 느꼈다. 황홀한 희열이 느껴지는가 하면 망연자실하게 하는 절망이 느껴졌고, 버티기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싶을 정도의 공포가 느껴졌다.

이 시간이 끝날 때면, 재소자들은 하나같이 장치에서 기어 나와 바닥에 엎어져서는 몸을 떨며 울었다. 리스크조차도 이 조치에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눈빛은 참담하다기보다는 게걸스러웠지만.

3 주 후, 한 사람이 잠에서 깨지 않았다. 부관은 재소자들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 가브리엘의 눈에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침대 위에서 벌벌 떠는 몸뚱이가 힐끗 보였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남자는 없었다.

“당신한테는 뭔가가 있어.”

벤치에 앉아 있던 가브리엘이 고개를 들었다. 리스크가 말을 건 것이다. 이 미치광이는 처음 이곳에 온 후로 아무한테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겁을 별로 안 먹잖아.” 리스크가 씨익 웃었다. 날카롭게 갈린 이빨 탓에 전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남들이 음식을 빼앗고, 침대도 빼앗고, 변소에도 못 가게 하잖아.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지. 그러면 조금 더 겁을 먹어야 맞지.”

“고맙다고 해야 하나.”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하고 아무 맛이 없는 죽을 한 숟가락 떠 먹었다. 리스크가 앉은 후로 아무도 탁자에 가까이 오지 않았다. 오늘날만큼은 가브리엘 혼자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을 모양이다.

사이드바: 재소자는 항상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평상시를 항상 전시로 간주하고, 전시를 항상 평상시로 간주하라. - 얼음집 강령 제4 조

“칭찬이 아니었는데.” 리스크가 말했다. 그 말투에 악의는 없었고, 왠지 불안한 호기심이 있을 뿐이었다. “나약하게 행동하고 나약해 보이지. 그런데 겁은 안 먹어. 그러니까 사실은 나약하지 않은 거야.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부인해 봤자 리스크에게는 먹히지 않을 것 같았다. “여기선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을 테니까.” 가브리엘이 대답했다. “사람들한테 얹잡히는 게 결국 나한테 유리할지도 모르지.”

리스크는 귀담아 듣지 않는 듯했다. 그는 가브리엘의 한쪽 팔에 난 보라색 멍을 뺨히 쳐다보았다. “그건 안 생길 수도 있었잖아.”

맞는 말이었다. 고무 총알을 쏘는 로봇들을 상대하는 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기계들은 동작이 느렸고, 몸을 숙이거나 비키지도 못했으며, 달리는 목표물을 추적하지도 못했다. 쉽게 피할 수 있어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때 로봇 하나가 어린아이의 홀로그램 영상을 투사했다. 실체감도 없었고 질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놀라서 잠시 망설였다. 로봇이 그에 대한 별로 그의 팔을 쏘았다.

“별수 없었어.” 가브리엘의 대답에 리스크는 예의 그 무시무시한 웃음을 지었다.

“아닐걸. 난 알아. 저들은 모르겠지만.” 그는 천장을 가리켰다.

가브리엘은 소리 내어 웃었다. “리스크, 남들이 너더러 좀 이상하다고 안 그래?”

리스크는 어깨를 으쓱했다. “진짜로 이상한걸.”

케조라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매일 재소자들을 관찰하고, 교대조를 짜고, 영양 공급을 관리했다. 재소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열여덟 가지 음식물을 먹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스테로이드, 중화제, 호르몬 억제제에, 거의 독이라고 해도 될 물질을 매번 다른 비율로 섞은 것이었다. 이 배급품의 효과는 예측할 수가 없었기에, 성공률이 높긴 하였으나 훈련 초기에는 꼭 한두 번씩 실패작도 나왔다.

그는 헤니솔의 부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고 있었다. 부검을 지켜보면서 왼쪽에 서 있던 의사에게 물었다. “사인을 모르겠다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17 호 배급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다시 16 호로 돌아간다. 전면 분석이 끝날 때까지 17 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앙통제실에서 나갔다. 케조라는 다시 화면 앞으로 돌아왔다. 재소자들은 아무 맛 없는 죽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

몇 분 후, 그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번 보았던 장면이 펼쳐졌다. 폴레크라는 이름의 재소자가 펠츠의 음식을 빼앗은 것이다. 펠츠는 매번 당하고만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케조라는 펠츠가 자리에서 일어나 폴레크의 뒤통수를 후려쳤을 때 실소할 뻔했다. 두 사람이 서로 엉겨 붙자, 음식과 재소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격려의 외침이 식당을 뒤흔들었다. 중앙통제실의 기술자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보고 있었다.

케조라는 펠츠를 면밀하게 살폈다. 전투 기술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들을 따라잡으려면 멀었다. 폴레크는 성장기에 일주일에 두 번쯤은 난투를 벌였을 것이다. 펠츠는 진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폴레크가 주먹을 들어 펠츠의 얼굴에 한 방 먹이자, 덩치가 작은 펠츠는 비틀거렸다. 빠른 주먹을 세 번 더 맞은 펠츠는 쓰러졌다. 폴레크는 그를 바닥에 잡아 눌렀다. 그 후로는

펠츠에게 승산이 없었다. 덩치가 훨씬 큰 적은 양팔을 휘두르며 펠츠가 반죽 덩어리라도 되는 듯 마구 때렸다. 재소자들은 그런 폴레크를 부추겼다. 참패였다.

케조라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정책에 따르면 간섭해서는 안 된다. ‘평상시를 항상 전시로 간주하고, 전시를 항상 평상시로 간주하라.’ 펠츠가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신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사이드바: 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잘 배우라. - 얼음집 강령 제5 조

그가 단추를 누르자, 식당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마이크 앞의 노란불이 켜졌다. “식사 시간은 끝이다. 훈련을 재개해라.” 재소자들은 느릿느릿 지시를 따랐고, 폴레크도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펠츠를 뒤로하고 줄지어 구내식당에서 나갔다.

케조라는 기술자 한 명을 돌아보고 말했다. “의료 팀을 불러서 저놈을 실어 와서 치료해라. 놈의 입을 열어야겠다.”

“소장님?”

“코랄에서 아직 응답이 없는데, 마냥 기다리는 데도 지쳤다. 저놈은 여기 안 어울려.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누군지 알아야겠다.”

* * *

정신을 차리는 순간, 수많은 명이 가브리엘의 관심을 끌려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고통은 수평선에 어른거리는 윤곽처럼 멀리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자기 방의 침대라기엔 너무 깨끗한 침대에 온몸이 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드디어 깨어났군.”

가브리엘은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보이는 거라곤, 예쁜 불빛들이 희미한 형상 주위를 헤엄치는 모습뿐이었다. 그 희미하고 비현실적인 형상은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조금씩 변했다.

“넌 사과니? 사과가 얼음덩어리가 되면 못쓰지.” 가브리엘은 킬킬거렸다.

목소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즐겨라, 펠츠.” 가브리엘의 귀에 조용히 쉼쉼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평온하던 느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수많은 얼음덩어리가 춤추는 모습이, 밝은 조명이 설치된 의료실과 케조라 소장의 모습으로 변했다.

“기분은 좀 낫나?”

가브리엘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머리는 빙빙 돌았다. 정신이 바짝 들었고, 고통도 이제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적응해라. 전투 자극제에 넣는 것과 같은 물질이다. 물을 넣어 6 배로 희석했을 뿐. 불쾌한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지.” 소장은 침대 곁의 의자에 앉았다. “보통은 성적이 우수한 재소자만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 펠츠. 너는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격이 없지. 너 때문에 이번에만 규칙을 깬 거다.”

“그거 영광이군요.”

“그거 영광입니다, 소장님.” 케조라가 말했다.

가브리엘은 반항을 할까 잠깐 생각했다. 아주 잠깐. “예, 소장님.”

“내 부하들이 네 정체에 대해 여남은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있다, 펠츠.” 케조라는 한 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고 펠츠의 눈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동의한다고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네가 얼음집에 있을 놈은 아니란 거지. 영리하고 목적 의식과 공감 능력이 있는 자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사이드바: 절대로 거짓된 겉모습에 넘어가 적을 얕잡아 보지 말라. 적의 속임수를 간파하면 진짜 위협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얼음집 강령 제6 조

가브리엘은 목소리에서 비꼬는 투를 지울 수가 없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소장님.”

“어쩌다 여기 오게 됐지?”

“예?”

소장은 얼굴을 바짝 붙였다. “무슨 죄를 저질렀지? 왜 여기 있느냐 말이다.”

“모르십니까?”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하고는 급히 덧붙였다. “소장님?”

“모른다고 치자.”

“예, 소장님.” 가브리엘은 생각을 정리했다. 그의 이야기가 그럴싸해 보여야 한다면...

“저는 동생과 함께 1 년 반 전에 새로운 재거주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죠.”

“재거주 지역은 살기가 힘든 곳이지.”

“자치령 통치 하에서는 살기가 아예 불가능하더군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절차로 귀찮게 하고, 그 다음엔 개인 물자 소지를 금지하더니 두 달이 지나니 불평 분자를 지하에 격리시킨다며 거주민 절반을 광산으로 끌고 가 하루 열네 시간 동안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제 동생도 같이 끌려갔죠. 그러고는 실종됐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한 모양이군.”

“저는 뭘 좀 물어 보려고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이 들으려 하지 않기에, 저는 더 크게 물었지요. 놈이 절 집무실에서 쫓아낼 때, 제가 위스키 병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놈의 셔츠가 젖었습니다. 부하들이 절 잡았고, 눈을 떠 보니 얼음집으로 오는 왕복선 안이더군요.”

케조라 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펠츠를 뺨히 쳐다보았다. “그게 다냐?”

“안 믿으시는군요.”

“거주지의 종복이 자기 옷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사람을 여기 보내려고 했다는 것까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군.” 케조라는 생각에 잠긴 듯했다. “얼음집에는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펠츠. 그리고 넌 어울리지 않아.”

“여길 망쳐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어찌실 생각이십니까?”

케조라가 씩 웃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예?”

“자치령엔 사신이 필요하다. 그거면 내겐 충분해.”

“그건... 소장님...” 가브리엘이 더듬거렸다.

“입 다물어라.” 케조라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놈도 사신으로 만든다. 저 밑의 숙소에서 너와 함께 지내는 놈들은 대부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수송료만큼의 가치도 없다. 그래도 우린 기회를 준다. 그중 한 10 퍼센트에서 15 퍼센트만 시련을 이겨 내고, 나머지는 못 이겨 내지. 별로 아까울 것도 없다.”

“그런데 너는, 아예 바보는 아닌 것 같구나.” 케조라가 말을 이었다. “오늘까지 너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피했지. 무식한 힘이 전부가 아니거든. 이걸 이겨 낼 수 있다면 너는 이 시설 최고의 자산이 될 거다. 내 사신들은 자치령에서 가장 훌륭한 사령관들에게 치하를 받은 바 있다. 내 사신들은 전투에서 순간순간 악마가 뿜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적에게 심어 주었다. 왜인지 아느냐?”

“우리는 할 일은 하나예요.” 가브리엘이 속삭이듯 말했다.

“바로 맞췄어.” 케조라가 일어섰다. “그 말 명심해라. 살고 싶으면 나머지 놈들처럼 훈련받고 싸워라. 내 프로그램을 통과하라고.”

“정말 그거면 됩니까?”

케조라는 “소장님”이 없는 것을 모른 체했다. “이틀 후면 훈련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 주먹을 막아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게 좋을 거야.”

가브리엘은 케조라가 문으로 걸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전 할 일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말의 무언가가, 소장을 돌려세웠다.

“두고 보지.”

가브리엘은 카메라와 감지기가 종일 자기를 감시하는 걸 느꼈다. 용케 폴레크와 부딪히지도 않았고,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공격하지 못했다.

세 달 후, 부관이 그들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으로 안내했다. 얼음집에서 있었던 일 중에 그나마 좋은 일이라 할 만했다. 길고 좁은 방 안은 전투복으로 가득했다. 전투복은 해병의 CMC 보다는 작고 가벼웠으며, 등 뒤에는 커다란 추진기가 하나씩 매달려 있었다. 리스크는 그 광경에 웃음을 지었다.

부관이 재소자들에게 전투복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농지거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열심히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몇 분 후에 훈련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고, 얼음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첫 난관은 추진기였다. 재소자들은 시동기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부관의 몫이었고, 부관은 최악의 순간에 추진기를 켜서 사람들을 천장이나 벽으로 날려 보내는 데 재미를 붙인 것 같았다. 그렇게 그들은 추진기를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벽에 부딪히는 일도 예사였고, 두개골 골절로 죽은 신병도 둘이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로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일명 ‘죽음의 낫’이라 불리는 P-45 가우스 권총은 총알을 뿜는 작은 괴물이었다. 전투복으로는 그 반동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사격장이 너털너털해졌고, 동료 재소자가 쏜 총을 맞고 죽은 사람도 몇 있었다.

마침내 명중률이 75 퍼센트에 달하자, 부관은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정을 한꺼번에 쓰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을 폭파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D-8 폭탄이 있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곤죽이 되어 벽에 처박힐 정도로 강력한 폭탄이었다. 폭탄 제조와 제거가 훈련의 목표였으나, 환경이 극단적이고 혹독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눈이 멀 듯한 빛이 있는 곳에서, 또 중력이 없는 방에서 훈련이 진행되었다. 사상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재소자들은 싸워 나갔다. 훈련 중에 죽는 자도 있었고, 헤니솔처럼 시체로 발견되는 자도 있었고, 자살하는 자도 있었다. 가브리엘은 버텼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케조라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다. 소등 전에 가브리엘 펄츠의 훈련 장면을 되짚어 보는 것이었다. 왜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사실,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토러스 행성계에서 보낸 지난 2 년은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웠다. 얼음집을 떠난 사신들은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불로써, 또 목숨으로써 자치령의 이익을 보호했다. 사후에, 혹은 비밀리에 수여된 것을 포함하여 수많은 훈장과 포상이 다시 얼음집으로 흘러들었고, 수훈자들의 이름은 점점 길어지는 성공 사례 목록에 추가되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죄 없는 사람이 얼음집에 입소한 적은 없었기에, 케조라는 지켜보며 노심초사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놀라울 만큼 불행한 일을 연이어 겪은 거주지 소년, 가브리엘 펠츠의 이야기가 UNN 의 저녁 뉴스에 보도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좋은 소재라면, 그 떠버리들도 윗선의 노여움을 무릅쓸 것이다.

누설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누군지 몰라도 이미 절차를 어긴 자가 있는 것이다. 펠츠는 이곳에 와선 안 되는 거였다. 그게 누구 책임인지 케조라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의 시장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고, 컴퓨터 기록에 따르면 아무도 실제로 이송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기술자들의 메모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펠츠라는 인물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행동은 변했다. 혼자 다니던 버릇이 없어지고, 남들과 약간의 유대를 형성했다. 특히 자칭 ‘리스크’라고 하는 로즈와 말이다. 둘은 항상 식사를 함께 했고, 운동이나 대련 시간에도 한 조로 움직였다. 이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친구가 된 것 같아 보였다.

케조라는 기술자들이 마음껏 추측하게 놔뒀다. 그들에게는 펠츠에게 해 준 조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펠츠는 얼음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과 친해지면 적대적인 관심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펠츠는 발전하고 있었다. 그것도 급격하게. 게다가, 전술과 전략에는 남다른 적성을 보이고 있었다. 지도자의 재목이다. 그가 사신의 대열에 합류하면 어떻게 될까?

성공한 실험 사례가 되겠군, 케조라는 깨달았다. 펠츠는 사신 프로그램이 인간 쓰레기로부터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의 가치를 짜낼 게 아니라, 숙련되고 영리한 신병을 기용해야 한다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미 최전선에서는 어떻게든 사신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혹시라도 더 우수해질 수만 있다면 자치령의 모든 사령관이 케조라에게 더 우수한 신병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펠츠가 성공한다면 자치령 복지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었다.

케조라는 마지막 메모를 덧붙이고 펠츠의 파일을 닫았다. 이번 기수 재소자들의 훈련 마지막 단계가 오늘 시작될 것이다. “졸업식 날이다.” 그는 얇은 웃음을 띤 채 말했다.

그는 얼음집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최종 시험을 승인한다. 다음에 배급할 음식에 약을 타고, 두 시간 후 모든 약탈자를 가동해라. 얼음집을 요리할 시간이다.”

“뭔가 이상해.”

가브리엘은 리스크를 보고 웃음 지었다. “이틀째 그 얘기잖아.”

리스크는 누런 응어리를 한 숟갈 더 입에 떠 넣었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

가브리엘은 리스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훈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틀 연속으로 자유 시간이 넉넉히 주어져, 모처럼 폭 자기까지 했다. 좋은 징조일 리가 없다.

리스크는 손바닥을 짹 펴쳐 탁자를 내리쳤고, 그러자 반쯤 빈 그릇이 탁자에서 굴러떨어졌다. “이제 더 못 참겠어.”

가브리엘은 움찔했다. “그 마음 알아.”

“알긴 뭘 알아?” 리스크는 으르렁대며 펄쩍 뛰어올랐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특히 너 말이야! 너부터 죽여 주지. 바로 지금!”

가브리엘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뒷걸음쳤다. 평소시의 리스크가 아니었다. 지금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브리엘은 놈의 이빨을 걷어차고 머리통을 뺏아 버린 다음 나머지 재소자들을 하나하나 찢어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나만, 오직 나만 살아서 서 있을 때까지...

뭐? 가브리엘은 펄쩍 정신을 차렸다.

광기가 식당을 휩쓸었다. 모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로 뒤틀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밀치기로 시작된 것이 드잡이로 이어지고, 몇 초 지나자 주먹이 오가고 있었다.

리스크는 목적을 잃은 듯,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미친 듯이 싸울 상대를 찾고 있었다.

가브리엘은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역시 음식이었군. 케조라의 장난이 분명하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산성액처럼 타올랐고, 입술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당겨져 우거지상을 만들고 있었다. 케조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피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해. 훈련과 죽은 이들에 대해, 그리고 특히 데니스에 대해...

그만둬! 가브리엘은 오직 의지만으로 분노를 억눌렀다. “리스크! 진정해! 음식 때문이야! 다 음식 때문이라고!”

리스크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마치 우리에게 갇히기라도 한 듯 작은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다. 가브리엘은 리스크의 팔을 붙잡았다.

“놈들이 음식에 뭔가 넣었어!” 리스크는 고개를 흔들고 있었지만, 가브리엘은 개의치 않고 말했다. “여긴 저그가 없어, 알겠어? 저그보다 나쁜 건 없다고! 네가 나한테 했던 얘기잖아!”

리스크의 눈이 초점을 찾았다. “맞아.” 그리고 겨우 대답했다. “저그보다 나쁜 건 없지...”

가브리엘은 안도감으로 기절할 뻔했다. 그래, 케조라는 우리가 겁을 먹고 성이 나길 바랐지만 자제력은 잃지 않기를 바란 모양이다. 이것도 시험인 모양이군. 다음은 뭐지?

재소자들이 아우성을 치며 출구 쪽으로 뛰는 통에 식당은 비어 가고 있었다. 남아 있는 사람은 폴레크를 포함해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 가브리엘은 핏줄에 흐르는 붉은 목소리를 뿌리치려고 애쓰며 리스크를 끌어당겼다. “우리도 가야 돼.”

폴레크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대체 왜 네놈 말을 들어야 하지, 꼬맹이?”

가브리엘은 엄지를 들어 뒤를 가리켰다. “저 꼴이 되고 싶어?”

재소자 일곱 명이 아주 나쁜 반응을 보였다. 그중 넷은 이미 머리를 얻어맞고 죽었고, 하나는 엉망이 된 얼굴을 움켜잡고 있었다. 나머지 둘은 서로 목을 조르려고 앞치락뒤치락하고 있었다. 폴레크조차도 욕지기가 나는 모양이었다.

“가자. 여길 나가야 돼.” 가브리엘이 그들을 이끌고 나갔다.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식당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서는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다. 부관의 목소리가 시설에 울려 퍼졌다. “모든 생도는 무기고 제 1 구획부터 제 8 구획까지로 향해 전투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폭동 진압군인 거야?” 누군가 물었다.

가브리엘은 고개를 휘휘 돌리며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피고 있었다. “이것도 훈련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봐! 저 소리 들려?”

강철 발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복도 저쪽에 뭔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기고 표범처럼 움직였으나, 크기가 시체매만 한 기계였다. 기계는 총알처럼 생긴 머리를 재소자들 쪽으로 돌리더니 금속 아가리를 썩 벌렸다. 피가 얼어붙을 것 같은 울음소리가 귀를 찔렀다.

“도망쳐!”

그들은 금속으로 된 발이 바로 뒤를 쫓아오는 소리를 들으며, 복도를 따라 달렸다. 그때 한 사람이 어리석게도 뒤를 돌아보았다. 다음 순간 기계 짐승이 그를 덮치더니 아가리로 몸통을 물었다.

사이드바: 적의 전투 상황을 정해 주라. 적이 내가 택한 방법으로 나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라. - 얼음집 강령 제7 조

나머지는 침착성을 잃지 않고 무기고의 열린 문이 보일 때까지 계속 달렸다. 그들은 그 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도 되는 양 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문 닫아!”

문이 닫히기 시작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다. 문틈에 부딪힌 기계는 완전히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피가 점점이 튼 머리를 비집어 넣고는 무시무시한 아가리를 딱딱거렸다. 간신히 무기 선반에서 총을 꺼낸 폴레크가 로봇을 마구 쏘아 종잇장처럼 찢어 버렸다.

폴레크가 채 자랑을 하기 전에 가브리엘이 그 뒤를 가리켰다. “더 온다!” 똑같은 기계 한 무리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가브리엘이 산산조각 난 로봇 표범의 잔해를 밀어내자 문이 닫혔다. 반대쪽에서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금속이 서로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짐승의 포효 소리가 한데 섞인 듯한 불협화음이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이제 어찌지?” 리스크가 물었다.

가브리엘은 무기고 건너편을 보고, 사신 전투복과 권총, D-8 폭탄은 물론, 전투 자극제 주입기까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어쩌냐고? 할 일을 해야지.”

케조라는 기술자들이 화면에 띄워 둔 수치를 힐끗 쳐다보았다. 1 분 내에 생도 넷이 죽었다. 10 분 만에 열두 명이 죽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적도 있었다.

약을 탄 음식이 효과를 발휘했다. 그는 가브리엘 펠츠가 금방 죽어 나갈 거라 예상했기에, 나머지 생존자들이 그를 선뜻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시험 데이터가 흥미로울 것이다.

케조라는 손가락을 맞대 세운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얼음집 곳곳에서 수십 명의 생도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고, 직원들은 비밀 안전실에 숨어 있었다. 중앙통제실의 문은 중앙 복도로 통하지만, 이 훈련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이미 봉쇄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생도도 기계도 들어올 수 없었다.

재소자들이 무기고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다. 맥박이 뛰는 것이면 무엇이든 공격한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수십 마리의 약탈자에 의해서.

신병들이 복도에 산개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모니터 하나가 경고음을 냈다. 펠츠가 RP17 전투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그로써 무장하고 전투 준비를 마친 자가 마흔 명이 되었다. 그중 삼분의 일은 혼자였다. 그들은 이번에 로봇이 몰려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기계 표범보다 더 끔찍한 것들이 나타날 테니까.

“여긴 저그가 없잖아!”

히드라리스크처럼 생긴 기계 괴물이 몸을 일으키더니 낮처럼 생긴 두 다리를 휘둘렀다. 리스크는 아이처럼 소리지르며 괴물에게 총을 쏘았다. 기계가 넘어져서 박살이 난 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저그가 없어! 저그가 없다고!”

나머지 재소자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계속 총을 쏘았다. 리스크를 진정시킬 시간이 없었다. 죽여야 하는 가짜 저그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포위를 뚫고 무기고를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계들은 파괴하는 만큼 보충되었다. 달리고 뛰고 몸을 던지고 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날려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가브리엘과 동료들이 지나온 곳에는 외피와 부품 파편이 쌓였다.

로봇들은 그들을 막기에는 너무 느리고 미숙하고 어설프다. 전신이 쭈시고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가브리엘은 즐거웠다. 케조라가 했던 시련 이야기가 맞았다. 힘들지만 할 만하다. 가브리엘은 해낼 것이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천장에 대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케조라는 갑자기 나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복도 하나의 감지기가 모조리 나갔습니다. L4 구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장은 욕을 내뱉었다. 그곳은 펠츠가 있는 곳이었다.

“소장님, 전투복 몇 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케조라가 정보를 검토했다. 그중에 RP17 도 있었다. “죽었나?”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소위, 그렇다면...” 케조라가 짐짓 참을성을 보이며 말했다. “통신 두절 직전의 데이터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심장박동과 혈압 증가, 흥분 상태...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그렇긴 하지. 케조라는 고개를 저었다.

“통신 두절 전에 RP17 전투복에는 이상 징후가 없었나?”

“예, 소장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케조라는 심호흡을 했다. “없었던 것 같다? 자세히 말해 보겠나?”

소위는 침을 꿀꺽 삼켰다. 눈썹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예, 옴. 소장님. 놈은 두절 직전 무기를 재장전했고, 심장박동이 약간 느려졌습니다.”

기술자가 대답했다. “놈은 차분했습니다. 기습을 당한 것 같지는-”

“쉴!” 케조라가 손으로 공기를 갈랐다. 기술자는 다행히 입을 다물었고, 케조라는 귀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일어섰다. 중앙통제실 입구 밖에서 쉼 하는 소리가 난 게 분명했다. 그 소리는 꼭...

전투 자극제를 주입하는 소리 같았다.

케조라는 책상을 옆으로 걷어차고 그 뒤에 웅크렸다. “숙여!”

가우스 권총 두 정의 포효가 방을 가득 채웠고, 총알이 책상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자 책상이 덜덜 떨렸다. 구리와 코르다이트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기술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 갔다.

케조라는 보조 무기를 꺼냈다. 소형 반자동 권총에 지나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는 소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아직 신음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살아 있는 기술자도 몇 있는 모양이었지만, 당분간 자기 몸은 직접 지켜야 할 것이다. 그는 문밖에 있는 게 누군지 잘 알고 있었다.

“펠츠?”

신병은 아드레날린과 자극제의 기운으로 광기가 어린 목소리로 깔깔 웃었다. “예, 소장님.

“훌륭한 기습이었다, 펠츠. 하지만 자기 위치를 노출한 부분에서는 감점을 해야겠군. 전투 자극제 주입기는 너무 시끄럽지. 전투 중에도 말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적이 좋아.” 전투 자극제의 효과는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조금만 시간을 벌면-

“그거 감명 깊군요. 특히 소장님의 말씀이다 보니.” 귀가 먹을 듯한 총성이 또 한 차례 중앙통제실을 뒤흔들었다.

사이드바: 적을 상대하고 처치할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방법은 상관없다. 칼이든 총이든 폭탄이든 주먹이든 쓰되, 절대 망설이지 말라. - 얼음집 강령 제8 조

케조라는 침착하게 건넜다. 그는 혼란 속에서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다. 펠츠가 그를 덮치러 오고 있었던 것이다. 소장은 고개를 내밀고 조준할 엄두가 나지 않아, 책상 주위에 되는 대로 총을 갈겼다.

발자국 소리는 반대편 벽에 줄지어 있는 컴퓨터들 옆에서 멈춰 섰다. 빈 탄창들이 탈카닥거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빚나갔군요, 소장님.”

“그런 것 같군.” 케조라는 권총을 재장전했다. “뭐 불만이라도 있나, 펠츠?”

“제 동생 일이 불만입니다, 소장님.”

소장은 의료실에서 펠츠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실종된 동생 말이군. 그런데 뭐가 불만이란 거지?”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펠츠가 말했다. “제 동생은 실종된 게 아닙니다.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지요. 아니, 어디 있었는지요.”

“그래?” 케조라는 이야기를 최대한 오래 이어 가야 했다. 중앙통제실의 총격으로 인해 이미 여러 종류의 무음 경보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곧 얼음집의 곳곳에서 보안 팀이 모여들 것이다.

하지만 늦어지겠군, 케조라는 깨달았다. 최종 시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앙통제실로 통하는 길이 모두 막혀 있을 것이다. 신병들이 상대하던 적과 싸워서 길을 뚫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펠츠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제 동생은 여기 있었습니다, 소장님. 얼음집에서 소장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지요.” 펠츠가 두 정의 총에 각각 총알을 장전했고, 그에 따라 찰칵거리는 소리가 두 번 방 안에 울렸다. “그 정보를 입수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지요. 아주 많이요. 못 믿으실 겁니다.”

“환불도 된다던가? 이 시설에 펠츠 성을 가진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아득한 뇌성처럼 들려오는 전투의 소음 사이로 사신의 말이 파고들었다. “제 얼굴을 봐도 모르시겠습니까? 훈련 중에 죽는 사람은 기억할 가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요.”

“나는 재소자를 낱알이 기억하고 있다.”

“실패작도요? 쓸모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펠츠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제 동생의 이름은 데니스 스탠튼이었습니다.”

데니스 스탠튼이라고? 그는 훈련을 시작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죽었다. 7 호 배급품이 몸에 맞지 않았는지 장기 몇 개가 곤죽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별로 아까울 것도 없었다. 데니스 스탠튼은 눈에 띄지 않고 쓸모도 없는 신병이었던 것이다.

케조라는 대충 얼버무리기로 했다. “나는 네 동생에게 기회를 줬다. 네게 준 기회와 같은 기회 말이지. 그게 실패한 것뿐이다.”

“동생에겐 기회가 없었습니다.” 펠츠가 말했다. 전투 자극제의 효과가 다해 가고 있었다. 그 탓인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투에 어린 독기는 가시지 않았다. “소장님도, 그 누구도 기회를 주지 않았지요.”

“넌 잘못 알고 있어.”

“저는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지요.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아인 아니었어요.” 사신의 추진기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펠츠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사신이 왔습니다. 빛을 갇을 시간이에요.”

“빛이라고? 무슨 빛?” 케조라는 권총을 짊 움켜쥐었다. “동생은 어차피 처형될 거였어, 펠츠-”

“제 성은 스테튼입니다.”

“네 동생은 죄인이었다, 스테튼. 게다가 똑똑하지도 않았지. 자제력이 너의 반만큼만 있었어도 좀도둑질로 한두 주 갇혀 있는 걸로 끝났겠지.” 케조라가 말했다. “그런데 고작 주머닛돈 몇 푼이나 훔치려고 민간인을 둘이나 죽였어. 게다가 세 블럭도 못 가서 경찰에 잡혔지.”

“제 동생이었어요. 당신의 이 지옥에 어울리는 아이는 아니었던 말입니다.”

“이 지옥은 효과가 있다.” 케조라는 방을 둘러보며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완전히 노출된 길밖에 없었다. “아니라고 할 테면 해 보라. 내가 너희를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살인 병기로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성공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펠츠가 말했다. 그의 전투복에 붙은 추진기가 비좁은 방 안에서 비현실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게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케조라는 눈을 질끈 감았다. 책상은 이제 충격을 더 버티지 못할 것이다. 펠츠의 사거리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칠 방법은 없었다.

방법이 없다.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가우스 권총의 총성이 중앙통제실을 채웠고, 총알이 잔뜩 박힌 책상은 덜컥거리며 구부러졌다. 두 번째 P-45 가 총알을 퍼부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네 번째가.

뭐/지?

총성이 잦아들더니, 케조라의 귀에 전투복을 입은 몸뚱이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다.

“소장님?”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다. 익숙한 목소리다. 케조라는 웃음 지었다. “로즈인가?”

리스크의 가우스 권총 앞에 떠돌던 연기가 가셨다. “예, 소장님.”

“잘했다, 신병.” 케조라가 일어섰다.

스태튼은, 아니 펠츠는 전투복 뒤에 총알 구멍이 뚫린 채 모로 누워 있었다. 케조라의 기억에 그는 늘 펠츠일 것이다. 케조라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신병의 투구와 마스크를 벗겼다. 그가 혈떡이며 얇은 숨을 내쉴 때마다 동맥에서 흘러나온 새빨간 피가 거품이 되었다.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펠츠의 두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어려 있었다. 리스크 쪽으로 머리를 돌리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질문은 목에서 꼬르륵거릴 뿐 차마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케조라는 펠츠의 어깨를 두드렸다. 전투 상황에서 약물을 사용해 정신이 흐려지기는 했으나, 얼음집의 감금 체계를 무력화했으니, 펠츠는 어떤 면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기대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는 바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보안 시스템을 피해서, 목표물을 찾아내고 궁지로 몰았다.

얼음집에 더 우수한 신병이 필요하다는 증거였다. 케조라가 이 사안을 멧스크 황제에게 직접 가져간다면, 바로 다음 달에 보다 우수한 신병을 징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훈련 과정에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머지 사신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펠츠를 내려다보았다. “제가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소장님? 펠츠가 제 친구인 줄 알았는데요.”

“너는 사신이니까, 로즈.” 케조라가 대답했다.

리스크는 묵묵히 그 말을 곱씹으면서 펠츠의 두 눈이 흐려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할 일은 하니까요.”

진실은 오직 승리에만 존재한다. 다른 모든 것은 흠날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 얼음집 강령

제9 조